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 ◎ **예고:** 다음 주일예배는 바누아투 단기선교를 돌아보는 선교보고의 주일로 지킵니다 (설교: 안영로 목사, 예장 증경 총회장).
- ◎ **간담회:**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향한 중,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간담회를 가집니다. 각 공동체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미리 의견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4년 7월 26일(토) 오후 7시-9시 장소: 유아실 참가대상: 각 공동체장과 인도자, 안수 집사, 당회원, 교역자
- ◎ **교육:** 시티 카운슬에서 주관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2차 교육이 다음주일(7월 27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주방 옆 교실).
- ◎ **감사:** 창립 감사주일 예배, 간증집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여러모양으로 아낌없는 수고를 해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 **주의:** 성전 안이나 교육관 등에서 가방이나 핸드백을 함부로 두고 다니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교우소식

◎ 등록: 백만기 집사 7C -105 Albert St. City 012-339-850 3남선교회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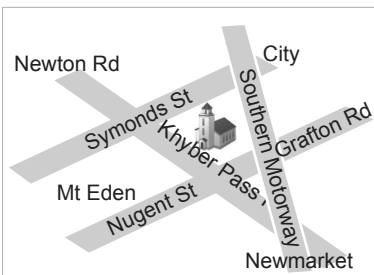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7월 20일 주일 16권 29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단기선교 후기 2 - 하나님은 일 하신다

목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가가호호 삼마 마을의 집들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삶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지만 외부인들의 방문을 기꺼이 맞아주었고 우리는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론 된 여인, 남편 없는 아기를 키우면서도 소식 없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내,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삶의 중심에 보듬고 살아가는 가족의 수고와 헌신, 천혜의 자연을 가졌음에도 노년이 되어 찾아오는 갖은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한때 행복 지수 세계 1위의 나라 였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그곳에는 아픔이 있었고, 사랑이, 그리움 이 있었으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임을 부인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좀 더 한 집 한 집 오래 머물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듣고 싶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달라는 소원 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일매일 깊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제목은 이기적인 기도에 급급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함께 기도하며 눈물 짓는 선교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눔의 씨앗이 좀 더 편안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호별 방문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요일은 마을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선교 정탐의 미션을 나름 훌륭하게 마친 목사님은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선교사역의 또 다른 숙제를 가지고 먼저 오클랜드로 출발했습니다. 어린이 사역팀과 청년 사역팀은 마을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게임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바쁜 것은 장년 사역팀과 주방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 전 저의 아이디어로 낸 잡채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호떡 믹스를 미리 불려놓고 뜨겁게 튀어 오르는 기름에 손가락을 데어 가면서까지 달달한 호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잔치의 압권은 마을에서 잡은 닭으로 요리한 닭죽이었을 겁니다. 불을 지피고 가마솥 대신 찜통, 국자는 대나무를 잘라서 휘젓는 5,60년대 시골의 모습이 살아난듯 갖은 노력과 땀방 - 안쪽에서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예배로 부름
개 회 송
참회의 기도
* 찬 송
* 성 시 교 독
* 신 앙 고 백
찬 송
대 표 기 도
성 경 봉 독
찬양대 찬양
설 교
찬 송
헌 금 기 도
교 회 소 식
* 응 답 송
* 축 도

반주자
시편 66:8-9, 20
찬양대
다함께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51. 시편 118편
사도신경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박병민 장로
사도행전 25:1 -12
나무십자가 찬양대
신앙인의 용기는 아름답다/이태한목사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찬 양
기 도
성 경
설 교
합 심 기 도
광 고
찬 송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문일숙 집사
요나서 4:2-4
요나의 기도/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최정인 형제

◎ 7월 교회일지

단기선교: 6월 30일(월) - 7월 7일(월)
간증집회: 7월 11-12 (금, 토요일)
창립주일: 7월 13일(주일)
간담회: 7월 26일(토요일)

◎ 7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박병민/이기중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강동호 집사
다음 주일: 최광암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박병민 청년부장
7월 30일 수요: 김순자 집사
7월 30일 애찬: 임혜자 권사
8월 3일 주일: 현석호 장로
8월 3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 1. 성령충만한 교회로 영혼 구원에 전력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 2.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민 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극복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 3.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함과 개강한 학생들, 청년들에게 지혜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7월 새벽기도회 본문

25일: 마가복음 9:14-29 믿음의 기도 위에 능력이 임합니다

- 컬럼 앞에서 부터 시작
올은 시간이 갈수록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갑고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들 잘 참아 내었습니다. 드디어 삼마 마을에도 밤은 찾아왔지만 힘겹게 끓여 놓았던 닭죽이 식어감을 보면서 안절부절인 우리와는 아랑곳 없이 마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들로 인해 마음 졸인지 1시간여나 지났을까... 마을에 종이 울리고 어른들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여듭니다.
잡채와 김치 부침개는 일찍 동이 났고, 닭죽을 끓였던 두 냄비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닭죽은 그야말로 인기만점이었지요. 선교팀들은 또 라면으로 저녁을 대신해야 했지만 진수성찬을 먹은 것보다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즐겁게 호응해 준 마을 주민들, 아마도 이것이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가질 하늘나라 잔치의 모형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어느덧 짝 찬 한 주간의 사역이 끝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삼마교회에서, 오후에는 삼마 마을의 또 다른 교회인 AOG(순복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찬양과 스킷드라마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부족하지만 삼마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주안에서 한 공체임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들, 그것은 땅에서 미리 맛보는 하늘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을 사람들이 마련해 준 환송회는 또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제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려지고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대신 받는다는 부끄러움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 선교팀을 위해 가장 안성맞춤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응답합니다. 선교 훈련과 더불어 시작된 4개월간의 선교여정을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며 내년을 또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겁게 기도해주신 성도들, 재정으로 후원해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심창진 목사